

우리 아이, 책 읽게 만드는 방법

책과 친한 아이로 키우기

부모넷 www.bumonet.or.kr

어린 시절 책 읽어주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엄마의 사랑이 담긴 목소리를 듣고 책과의 친밀감이 형성되어 책과 친한 아이가 된다. 책읽기는 공부가 아니라 생활이다. 자연스럽게 아이가 책 읽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주어야 한다.

책 읽어주는 부모되기

'그래 그래 너희 집엔, 비단옷과 번쩍이는 보석
그래 그래 너희 집엔, 맛있는 음식과 아름다운 정원
그러나 그러나 우리 집엔, 책 읽어주는 엄마가 있단다'

'책 읽어주는 엄마'란 유럽의 전래동요이다. 책 읽어주는 엄마란 이렇게 아이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존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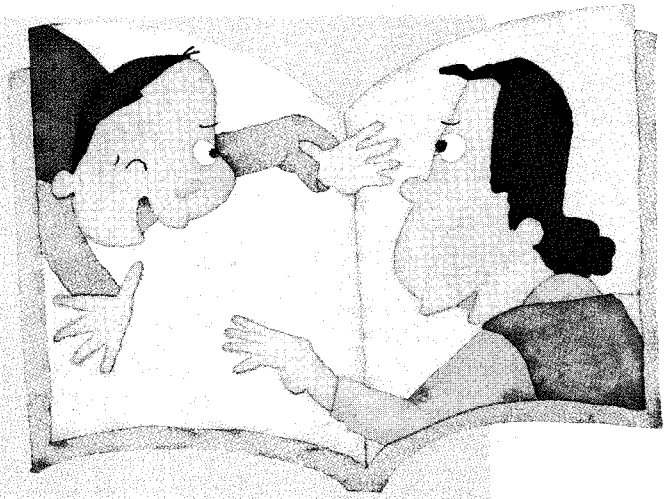
자장가를 불러주던 사르르 잠들던 아기가 세 살이 넘으면 자장가보다 이야기를 좋아하게 된다. 이때가 책과 친한 아이로 만들 최초의 기회이다. 2~3세 아기들은 어린 동물이 나오는 그림책에서 차츰 이야기가 흘러가는 전래동화를 좋아하게 되고 4~5세가 되면 무서운 이야기도 좋아한다. 그러나 사실은 이야기의 내용보다 엄마의 사랑이 담긴 목소리를 좋아하는 것이다. 엄마와 관련된 이런 기억들은 책과의 친밀감으로 형성되어 책과 친한 아이로 만들어 준다고 한다.

어린 시절에 책 읽어주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책 속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아이들은 책방이나 도서관에 가면 책을 보며 조용히 집중할 줄 알고 남의 집에 방문했을 때에도 어른들이 이야기 하는 동안에 책을 보며 조용히 지낼 수 있다. 잠들기 전에 해피엔딩의 전래동화가 좋다. 해피엔딩을 들은 아기들은 안정되고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게 되며 낮에 읽어주는 책은 그림책이 좋다. 그림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를 엄마와 함께 찾아보기도 하고 말로 재현해 보게 하는 것이 좋다.

책 읽는 부모가 먼저 되기

자신은 일 년 열두 달 책 한 권 읽지 않으면서 자식에게는 "책 읽어라, 책 읽어라" 하는 부모들

이 있다. 그러나 교육효과가 없다. 부모님의 책 읽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책을 좋아한다. 그 아이들에게 책읽기는 공부가 아니라 생활이기 때문이다. 부모가 책을 읽는 것이 교육적으로 좋은 결과를 낳게 된다. 어려서부터 부모가 책 읽는 모습을 보고 자라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책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책방 · 도서관에 함께 가기

아이들이 책방에 가서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것은, 세상에 엄청난 분량의 책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 많은 책을 보면서 아이들은 자신이 우물 안 개구리임을 인식하게 되고 독서욕을 자극하게 된다.

유아를 데리고 처음 책방 나들이를 할 때는 동네의 깨끗하고 아담한 책방으로 가는 것이 좋다. 평소 안면이었던 책방 주인이 아이에게 미소를 지어준다면 더욱 좋은 추억이 될 것이다. 초등학생이 되면 좀 더 큰 책방을 선택하고, 고학년이 되었을 즈음에 대형 서점을 가는 것이 좋다. 책방 구경이 끝나면 아이의 몫으로 책을 한 권쯤 사는 것이 좋다. 그 책은 아이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보물이 된다.

책 선물하는 부모되기

누구나 선물로 받은 것은 오래 간직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책은 간직하기도 쉽고, 보관하기 편리하고, 유행을 타지 않아 오랫동안 간직하게 된다. 간직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의 주제는 독자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생을 함께 한다고 볼 수도 있다.

위인들의 일생을 보면 어린 시절에 읽은 책 한 권이 그들의 삶에 방향을 제시했던 경우가 많다. 현명한 부모들은 위인전을 선물하는 예가 많다. 말보다 책 한 권을 통하여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깊고 강력한 영향을 주게 된다. 책을 선물할 때는 어린이의 희망과, 요즈음의 심경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것으로 고르는 것이 효과적이다.

책 선물이 갖는 또 하나의 장점은 받는 기쁨을 알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주는 기쁨도 알게 한다는 사실이다. 어린 시절에 책 선물을 받은 아이들은 자라면서 주는 입장으로 바뀌게 되어 책을 선물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